

세상의 시작, 과정, 마지막

The Beginning, Course and End of the World

마태복음 13:24-3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9월 29일 설교

²⁴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²⁵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²⁶씨가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²⁷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²⁸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²⁹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³⁰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픔이 있는 세상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 살기 많이 힘들었지요? 세상 살기 쉽다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데려와 보십시오. 전 그런 사람 아직 못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빌게이츠나 이견희처럼 돈이 많아도 힘듭니다. 오바마나 반기문처럼 권력을 가져도 어려운 인생입니다. 성공해 하늘을 나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실패해 가라앉아 있는 사람도 힘들고 다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입니다.

이유는 우리 다 압니다. 죄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이런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 대부분이 누가 누굴 죽였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명이 그렇게 살인이라는 죄 때문에 없어집니다. 때리고 빼앗고 속이고 하여간 온갖 죄악에 당합니다. 맞으면 아프지요. 빼앗겨도 아프고 속임을 당해도 괴롭습니다. 가정은 안 그렇겠지만 일단 집을 나서면 경쟁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운전할 때도 경쟁입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욕심도 없애 달리고 간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들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병이나 사고로 겪는 아픔은 예수 믿는 우리도 다 겪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아무래도 덜 싸울 거니까 아픔도 덜하겠지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 우리한테도 불똥이 튕니다. 특히 바르게 살려 애쓰다 보면 더 힘들 때도 많습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는 하소연이 많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사는데,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조치를 좀 안 취해 주십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는 고통뿐 아니라 까닭모를 아픔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비유도 천국 비유입니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에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고 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밭은 하나고 대신 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비유 이름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미 뿌려 놓은 알곡 사이사이에 뿌렸다는 말입니다. 다 된 밥이 아니라 막 안친 밥에 재를 뿌린 격이지요.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도 보입니다. 가라지지요. 주인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곡식까지 덩달아 뽑아서는 안 된다. 추수 때까지 둘이 같이 자라

게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아두어라.’”

주님이 주신 설명

이 비유도 지난 주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졸랐지요. 비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들려 주셨지만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려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 당신이라 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해 마귀를 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모아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마귀의 자녀들을 모아 그렇게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들을 가리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을 유혹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법은 그 죄를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가 하는 일입니다. 가라지는 심판 날 풀무 불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곡식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의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유의 핵심 가르침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게 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직 결실하는 밭만이 천국이다,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규모가 좀 큼니다. 온 세상, 온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시작, 과정, 결과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첫 시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거기 천국의 씨 곧 천국의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창세기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 자는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천국 백성들에게 뱀이 와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이 금방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저주에 빠졌습니다.

원수는 마귀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가라지는 열매도 못 맺으면서 물과 양분을 가져갑니다. 알곡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지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이 어디서 왔을까?

비유 앞부분에서 주님은 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이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에 악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긴 한데 능력이 모자라 악을 없애지 못하신다. 아니면 악을 없앨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어서 일부러 안 없앤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있고 그 악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아주 나쁜 신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 듯하지요? 이런 공격에 맞설 적당한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모두가 잘 때 했다고 하셨습니다. 잘 때 했으니 몇 시쯤 와서 어디다 어떻게 뿌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악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어떻게 두 사람을 유혹하게 되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이 제 힘으로는 세상을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 저 혼자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겼을 때, 세상에 죄라는 게 들어왔고 고통과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심판을 받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언급도 없고 가라지가 심판을 받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붙이는 마귀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가라지 곧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

악의 기원은 마귀이면서 또 사람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지성의 전인격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판단한 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프로 그래밍 해 놓으신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동물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동물처럼 거역할 능력이 안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증거가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과일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금지령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도 물으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선악과 곁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명령을 어길 경우 벌이 따릅니다. 죽음과 고통의 벌이지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을 어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지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동물이요 기계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자유도 얼마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아담 하와가 잘못 활용한 게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 곧 마귀가 악의 기원이면서 사람이 또 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악을 도입한 첫 사람 아담을 비난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지을 가능성까지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왜 동물로 안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보고 짐벌는 일이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 이 세상의 지금 형편을 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처음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은 꼭 그 모양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씨가 교회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도 뿌렸습니다. 알곡과 똑같이 자라지만 열매는 안 맺습니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 맺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결국 열매 하나로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라지가 드디어 표시가 납니다. 그 전에는 가라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래 뿌리고 갔으니 몰랐지요. 주님의 종들이 주님에게 여쭙었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그냥 두자.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안 된다.”

가라지는 열매를 못 맺을 뿐 아니라 알곡이 열매 맺는 것까지 방해하는 아주 나쁜 풀입니다. 당장 제거해야 알곡이 열매를 더 잘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없애시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알곡 때문입니다. 종들은 지금 가라지를 없애까요 하고 묻는데 주인은 알곡을 걱정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제거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곡기 가라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즐기는 나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알곡은 하나도 안 다치고 가라지만 싹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뽑는 일은 종들이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알곡을 배려하셔서 그냥 두라 하십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면 알곡에게 손해가 많습니다. 물도 양분도 많이 빼앗깁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키도 크고 잘 자라기 때문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혀 버리면 알곡도 죽겠지요. 혹 곡식을 맺었다면 그대로 추수하면 되겠지만 아직 열매를 맺기 전입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

다. 그래서 그냥 두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애초부터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한 곳에 뿌린 게 아니라 알곡 사이사이에 뿌렸습니다. 영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해설을 보면 악은 두 가지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이들인데, 불법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법을 돌 판에 분명하게 새겨 주셨지만 그렇게 알려주시기 전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갖고 태어납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법이지요. 물론 양심 자체가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것이라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또 억눌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 맞은 양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첫째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게 따로 있다는 것하고, 둘째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부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지키려 하는 나를 자꾸 부추겨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또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 역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해서 죄 지은 본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살인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만 고통은 살해당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이 받지요. 강도, 강간, 사기 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심한 죄가 아니라 해도 다 자기만 챙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슬프고 아픕니다.

천국 백성은 이 고통이 남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고통이 안 오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하소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악을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알곡을 배려하시고 그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주인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세 번째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왜 불평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 주시는 부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나누어집니다.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추수 때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따라 뽑혀도 괜찮습니다. 이미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라지만 가려 모아 단으로 엮어 불에 태웁니다. 알곡은 따로 모아 주인의 공간에 넣습니다. 천국 백성이 영원히 머물 곳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 가라지,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던 무리는 다 풀무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마음껏 죄 짓고 애꿎은 사람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끼쳤지만 이제 그 대가를 받습니다. 후회하겠지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 악의 기원이 다시 확실해졌습니다. 악의 기원은 바로 가라지 자신입니다.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뱀이 쥐서 먹었다,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불법은 가라지 자신이 행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고도 했습니다. 남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원수가 아닌 가라지 자신이, 악의 기원인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악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마음 속을 잘 살펴볼 것을 꼭 권해야 됩니다.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생했지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쉽지 않았습다. 놀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힘들지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 모든 고생이 끝입니다. 고생은 끝나고 영광이 시작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되겠지요. 힘드니까요. 그 날에는 다 깨달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맺을 열매

주님이 첫 비유를 끝내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지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비유 말고 나중에 해설을 끝내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우리지요? 믿는 우리, 천국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뭘 어떻게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시작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내 죄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우리도 짓고 아담이 도입한 그 악을 오늘 우리도 행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주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지는 뻔뻔스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과 고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가라지를 그냥 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아파도 참고 슬퍼도 꼭 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만 참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참았지만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습니까?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자라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알곡만 맺히면 바로 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도 더디게 맺히니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따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얼른 맺어야 이 기간도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악이 있는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슬픔과 아픔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오늘도 속이며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화내지 말고, 그들이 겪을 운명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보아야 됩니다. 오직 천국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이들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에 든든히 서서 힘든 상황 가운데 열매를 멋지게 맺음으로써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